

# 새 영역으로 자리잡는 '등산책' 출판

## 세계 유명산악인의 등반기 인기... 전문출판사도 등장

별로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등산을 소재로 한 책들의 출간이 몇해 전부터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 등산관계 책은 유명 산악인의 등반기, 암벽등반 등 등반기술을 소개한 책, 국내 등산코스를 안내한 책자 등으로 대별된다. 그중에도 등반기의 출간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하다. 이는 등반기술이나 등산코스안내 책이 실용서인데 비해, 등반기는 일반독자들이 직접 산에 오르지 않고도 등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에 나온 것만 50여종... 등반기가 주류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등산관계 책은 줄잡아 50여종. 등반기가 20종으로 가장 많고, 등반기술을 소개한 책과 등산코스안내서가 각각 10여종, 이밖에 등산을 소재로 한 소설·시·수필이 10여종을 차지한다.

등반기는 험준한 高峰을 정복하기까지 겪는 극한적인 고통과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정복의 희열을 산악인 자신들이 직접 쓰고 있다. 라인홀트 메스너의 「검은 고독 흰 고독」·「죽음의 지대」(이상 평화출판사), 하인리히 하러의 「티베트에서의 7년」, 안데를 헤크마이어의 「알프스의 3대 북벽」(이상 수문출판사), 모리스 엘조그의 「초등 안나푸르나」(사현각) 등이 대표적이다. 「검은 고독 흰 고독」은 8125m의 낭가파르바트를 혼자 등반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체험기로, 메스너 특유의 등산철학-최소한의 장비, 단독등반-이 돋보인다. 같은 저자의 「죽음의 지대」는 동료의 추락을 겪으면서 등반하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는 내용을 다뤘다. 아이거 북벽을 처음 오른 사람으로 알려진 하인리히 하러의 「티베트에서의 7년」은 낭가파르바트 정찰 도중 전정포로가 되어 티베트까지 가게 되는 모험의 과정과 티베트의 풍습, 지형을 소개하고 있다. 「알프스의 3대 북벽」은 등정하기 힘들기로 손꼽히는 마터호른, 그랑드조라스, 아이거 북벽 등반의 실패와 성공의 영광을 적고 있다. 「초등 안나푸르나」는 저자가 등반 이후 병원에서 동상치료를 받으면서 구술로 기록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다. 에드워드 워퍼의 「알프스 등반기」(평화출판사)와 윌터 원쉴즈의 「알프스의 북벽」(사현각)은 등산의 역사를 엮고 있다. 전자는 초기 알프스 개척사를, 후자는 근대적인 등산의 태동으로부터 일류장비를 갖춘 최근에 이르기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등산관계 서적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산에서 겪는

극한적인 모험의 세계를 기록한

세계 유명산악인의 등반기를 비롯,

등반기술·코스안내서까지

출간되고 있어, 이제 등산분야는

출판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까지 등산운동의 역사를 보여준다.

한편,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등반 중에서 82년 아이거 북벽 등반이 「영광의 북벽」(정광식, 수문출판사)으로, 75년 한국산악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히말라야 원정을 위해 파견되었던 정찰대의 정찰기가 「저! 히말라야」(손경석, 성문각)로 발간되었다. 국내 등산 6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지의 흰 눈을 밝으며」(김정태, 캐럴출판사), 86년 한국 K2원정대의 K2봉 등반을 엮은 「죽음을 부르는 산」(김병준, 예문사)도 나와 있다.

또한 77년 온 국민을 열광케 했던 에베레스트 등반과정을 간결하게 소개한 김영도의 「나의 에베레스트」(평화출판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채롭다. 어린이들에게 모험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등반기들은 전문산악인의 등반을 돕는 참고서 역할을 함은 물론,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등반의 맛을 만끽할 수 있게끔 책을 통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등반기술에서 등산안내까지 다양

한편 암벽등반·빙벽등반 등 등반기술을 소개한 책으로는 「현대등산교본」(현대레저연구회, 진화당), 「현대등반기술」(주영, 평화출판사), 「암벽등반기술」(손경석, 성문각) 등이 있다. 암벽등반의 기초에서부터 암벽등반의 종류, 장비와 그 성능, 사용법, 확보기술, 구급처치법에 이르기까지 암벽등반에 필수적인 지식을 설명해준다.

이반 슈나드의 「아이스 클라이밍」(평화출판사)은 아이스 클라이밍의 역사와 종류, 안전확보기술, 눈사태 등산의 위험 대피방법, 장비의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산관련 책들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씨바이벌」(손경석 편, 서문당), 「씨바이벌 매뉴얼」(한국등산연구소, 평화출판사), 「조난과 생존」(임신영, 예문사) 등은 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물이 없을 때 또는 나침반이 없을 때 대처요령이라든지, 간단한 도구로 불을 피우는 요령,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간단한 응급처치법, 환자 이송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또 한가지, 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산코스안내서로는 「산으로 가는 길」(애우당), 「222산행기」(평화출판사)가 대표적. 북한산, 도봉산에서부터 설악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지도로 등산코스를 보여주고, 교통편과 소요되는 시간, 숙식방법 그리고 산과 연관된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등산하는데 완벽한 안내를 해준다. 이외에도 「등산코스안내집」(삼지사), 「산악인의 가이드」(일신서적공사), 「매혹의 명산 35」(샘터), 「한국 100 명산」(평화출판사) 등이 눈에 띈다. 이들 책은 대개 4×6판 크기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 대부분이 번역물... 국내 산악인 저서 늘어

등산관계 책들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는 70년대부터 이 분야의 꾸준한 출판으로 정평있는 평화출판사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점가에서 평화출판사의 책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허창성 사장은 "등산 그 자체를 이

기하는 책이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삶에 대해 깊이있게 사고하는데 도움이 될 등산관계 서적을 만들겠다"고 밝힌다. 한편 지난해 「한국산악문학의 핵」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수문출판사(대표 이수용)도 「세계산악명저선」전10권을 기획하고 있어 주목할 만한데, 그중 4권이 이미 출간되어 독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제까지 발간된 등산기의 대부분이 번역출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국내 전문산악인의 층이 두텁지 못한 까닭에 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점차 높아져가는 일반인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관심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관련 책들의 활발한 출간이 기대된다.

—홍현숙 기자

## 출판제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